

국가 '기부대 양여' 부족분·이전 후보지 인센티브 지원

광주공항 특별법 통과 의미와 전망 정부 위원회 구성 이전 사업 지원 함평·무안·영광·고흥·해남 거론 찬반 갈등 이전 후보지 선정 난항

광주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광주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광주군 공항 이전 및 중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 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 십년째 난항을 겪어왔던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존 부지를 개발해 이전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등 추진 과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의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여전히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전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군 공항을 넘겨줄 광주시, 넘겨받을 전남도, 유치 의향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최선의 방안을 찾는 데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대 양여' 부족분 국가 재정으로 지원=이날 국회를 통과한 광주군 공항 특별법은 광주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우선 제6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에서 국가 지원을 명시했다. 특별법에서 국가는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부지를 개발해 이전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추진 안정성을 한층 높여 사업 대행자의 참여, 예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유치 의향을 자극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법 제15조(이전 지역 지원)에서는 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사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조항대로라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지원위를 통해 여러 중앙 부처의 지원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 관련 사업인 만큼 국가재정법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어서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에서 빠졌다.

◇이전 후보지 선정 등 향후 일정=특별법 국회 통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따라 많은 것들은 생겼지만, 곧 이어질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예비 이전 후보지는 희망 지자체의 유치 의향서 제출,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간 유치 의사 확인을 거쳐 선정된다.

이후 사업비를 산출하고 중전 부지 활용방안,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 뒤 심의를 거쳐 '예비'라는 꼬리표를 댈 이전 후보지 지위를 얻게 된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공식 유치 신청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그동안 이전 대상지로는 함평, 무안, 영광, 고흥, 해남 등 바다를 낀 전남 군 지역이 거론됐다.

국회 공항이 있는 무안으로 시선이 쏠리기도 했지만, 지역 내 반발이 거센 데다 최근 함평에서 잇따라 이전 사업 설명회가 열리면서 이전 후보지에 대한 변수가 생겼다.

함평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군 공항 이전 및 중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함평의 광주 편입 후 통합을 전제로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여론이 등장하면서 함평 내 찬반 갈등도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시도 바다를 보유한 광역 도시로서의 미래를 그리며 함평으로 이전 추진을 내심 바기는 모양새를 보여 전남도, 도의회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전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반발이 큰 무안, 현실성에 주목해 접근하는 함평 등 그 밖

의 후보 지역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정했거나 염두에 두고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논의의 시작은 원하는 지역의 유치 신청이고, 그다음 해당 지역 인센티브 등 논의가 구체화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과 상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7480억원, 이 중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으로 추산됐다. 특별법 등 영향으로 비용은 가감될 수 있다. 광주군 공항은 1964년 개항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에 자리 잡았으나 도심 확대로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해 이전 요구가 커졌다.

2014년 10월 광주시에서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적정' 판단을 통보하면서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후보지 선정 등 난항으로 진전이 없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국힘 윤리위원장 황정근·당무감사위원장 신의진

청년대변인 김가람 임명

국민의힘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당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당무감사위원장에 신의진 전 의원(연세대 의과대 정신과학교실 교수)을 각각 선임했다. 또 '청년 대변인' 직을 부활시켜 김가람 전 한국 청년회의소중앙회장을 임명했다.

황정근 선임 윤리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대통령탄핵사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하면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선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이었다.

신의진 선임 당무감사위원장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의 심리 주치의의 담당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면서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했고,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20년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지냈다.

김기현 대표는 "당 기강을 세우는 대표적인 두 개의 위원회인 만큼,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구성까지 조속히 완료해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리 국민의힘은 '청년 대변인' 직을 부활시켜 김가람 전 한국 청년회의소중앙회장을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직에 도전했으며, 이후 당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위 청년부위원장 1명과 정책조정위원회 청년 부위원장 6명을 공개 모집으로 선발해 임명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홍준표 내친 김기현... '전광훈 설전' 여파?

"당 지도부 향한 설전 도 넘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홍 시장의 해촉 이유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 당

시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이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날 김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며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상승 34%

NBS...양곡법 거부 부정평가 5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

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7%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3%p 내렸다.

3월 첫째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37%를 나타낸 뒤 이어지던 하락세가 이번엔 멈췄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

시킨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51%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답변보다 13%p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앞선 조사보다 1%p 떨어졌고, 민주당은 3%p 하락한 28%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